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스윗마이홈」에 관한
연구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지 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 작품 「스윗마이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sweet
my home」

2020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지 예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 작품 「스윗마이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sweet
my home」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지 예

박지예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용 작품 「스윗마이홈」 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박 지 예

본 연구는 ‘불신감’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제작된 무용창작 「스윗마이홈」의 표현방법과 연구 과정, 작품의 분석을 기록한 논문이다. 연구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결론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심리적 상황을 작품 내에서 묘사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에서 ‘불신감’이라는 감정을 연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불신감’이란 어떠한 것을 믿지 못하는 느낌이나 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형성된 ‘불신감’이라는 감정을 탐구하고,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용작품 「스윗마이홈」은

‘방=삶’, ‘청소=복구’, ‘결벽=자기방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대입하여 제작되었다. 연구자는 작품에서 ‘방’이라는 세계관과 청소라는 행위를 소재로 가져왔다. 상징적 의미를 가진 ‘방’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의 연출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좌절당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의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잃게 된 사람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파괴된 삶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파괴된 ‘방’을 다시 ‘청소’하는 행위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를 통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바람은 낯선 타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신의 코드를 타고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된다. 결벽증세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자기방어적 습관으로서, 어렵게 복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감정선을 표현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 과정을 통하여 원활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의 입장을 방 청소라는 소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로하고 싶었다. 또한, 무용수 A가 트라우마로 인하여 인간관계에서 서서히 고립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무심코 쉽게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였다.

【주요어】 방, 청소, 자기방어, 불신감, 인간관계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불신감과 자기 방어기제	3
III. 연구작품의 개요	7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7
3.2 작품의 구성 요소 및 표현매체	9
3.2.1 움직임 표현방법	9
3.2.2 의상	10
3.2.3 조명	11
3.2.4 음악	13
IV. 작품분석	14
4.1 작품의도	14
4.2 작품내용	14
4.3 Intro-사건의발생	15
4.3.1 내용 및 안무의도	15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6
4.3.3 음악	17
4.3.4 무대장치 및 조명	18
4.4. 1장: 공간(방)-결벽의 발단	19
4.4.1 내용 및 안무의도	19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0

4.4.3 음악	21
4.4.4 무대장치 및 조명	23
4.5 2장: 타인- 결벽의 전개, 불신감의 시작	24
4.5.1 내용 및 안무의도	24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4
4.5.3 음악	26
4.5.4 무대장치 및 조명	27
4.6 3장: 결벽의 절정- 공동체의 붕괴	28
4.6.1 내용 및 안무의도	28
4.6.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8
4.6.3 음악	30
4.6.4 무대 장치 및 조명	31
V.결론	32
참 고 문 헌	34
부 록	35
ABSTRACT	37

표 목 차

[표1-1] 미성숙한 방어기제	4
[표1-2] 성숙한 방어기제	6
[표2-1] 장면의 특성 /Intro- 사건의 발생	7
[표2-2] 장면의 특성 /1장- 결벽의 발단	7
[표2-3] 장면의 특성 /2장- 결벽의 전개	8
[표2-4] 장면의 특성 /3장- 결벽의 절정	8
[표3] 움직임표현방법	9
[표4] 조명의 구성	11

그림 목 차

〈그림 1-1〉 Intro: 플로어 패턴	17
〈그림 1-2〉 Intro: 플로어 패턴	17
〈그림 1-3〉 Intro: 플로어 패턴	17
〈그림 1-4〉 Intro: 플로어 패턴	17
〈그림 1-5〉 Intro: 조명 플랜	18
〈그림 1-6〉 intro: 조명 플랜	18
〈그림 2-1〉 1장: 플로어 패턴	21
〈그림 2-2〉 1장: 플로어 패턴	21
〈그림 2-3〉 1장: 플로어 패턴	21
〈그림 2-4〉 1장: 플로어 패턴	21
〈그림 2-5〉 1장: 조명 플랜	23
〈그림 2-6〉 1장: 조명 플랜	23
〈그림 3-1〉 2장: 플로어 패턴	26
〈그림 3-2〉 2장: 플로어 패턴	26
〈그림 3-3〉 2장: 플로어 패턴	26
〈그림 3-4〉 2장: 플로어 패턴	26
〈그림 3-5〉 2장: 조명 플랜	27
〈그림 3-6〉 2장: 조명 플랜	27
〈그림 4-1〉 3장: 플로어 패턴	30
〈그림 4-2〉 3장: 플로어 패턴	30
〈그림 4-3〉 3장: 플로어 패턴	30
〈그림 4-4〉 3장: 플로어 패턴	30
〈그림 4-5〉 3장: 조명 플랜	31
〈그림 4-6〉 3장: 조명 플랜	31

사 진 목 차

〈사진1〉 무용수A 의상	10
〈사진2〉 무용수B 의상	10
〈사진3-1〉 Intro 조명	12
〈사진3-2〉 1장 조명	12
〈사진3-3〉 2장 조명	12
〈사진3-4〉 3장 조명	12
〈사진4〉 Intro: 사건의 이전의 모습	16
〈사진5〉 Intro: 사건의 이전의 모습	16
〈사진6〉 Intro: 사건의 발생	16
〈사진7〉 Intro: 사건 후, 파괴된 방, 남겨진 무용수	16
〈사진8〉 Intro: 조명 플랜	18
〈사진9〉 Intro: 조명 플랜	18
〈사진10〉 1장: 결벽의 발단	20
〈사진11〉 1장: 청소를 통한 삶의 복구	20
〈사진12〉 1장: 빗자루를 타는 모습	20
〈사진13〉 1장: 조명 플랜	23
〈사진14〉 1장: 조명 플랜	23
〈사진15〉 2장: 타인의 등장	24
〈사진16〉 2장: 타인을 경계하는 모습	24
〈사진17〉 2장: 결벽의 전개	25
〈사진18〉 2장: 타인을 닮는 무용수들	25
〈사진19〉 2장: 조명 플랜	27
〈사진20〉 2장: 조명 플랜	27
〈사진21〉 3장: 결벽의 절정	28
〈사진22〉 3장: B와의 접촉에 불신감을 느끼는 A	28
〈사진23〉 3장: A에게 접촉하는 B, B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A	29
〈사진24〉 3장: B를 버리는 A	29
〈사진25〉 3장: 버려진 B 혼자가 된 A	29
〈사진26〉 3장: 조명 플랜	31
〈사진27〉 3장: 조명 플랜	31

I. 서론

본 연구는 ‘불신감’이라는 감정에 대한 표현방법 연구로, 「스윗마이홈」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관계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불신감’이라는 감정과 그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타인에게 불신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거쳐서 불신의 코드로 가기까지는 그다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굴레 안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불신감은 그러한 시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난다.

「스윗마이홈」 안에서 불신감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방어를 전제로 형성된다. 때문에, 무용수 A와 B가 작품 내에서 타인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겪었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예방적 행동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Kohut(1971, 1979, 1984)은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방어를 “취약한 자기(enfeebled self)”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정의하였다. 정신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안이 일어날 때, 그러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 자아가 동원하는 갖가지 정신적 대처를 방어라고 하였다¹⁾

이렇듯 자기방어는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주변 환경의 갈등에 직면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형성되었을 때, 불안을 다루기 위해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동원하는 갖가지 정신적 대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성격, 특징, 생활양식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 강연우,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Narcissism, defense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석사학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자아 방어기제는 개인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요구를 조정하려는 무의식적인 정신과정,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지닌 의식적 행동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아 방어기제는 무의식적 정신 내적 과정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까지 포함되며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적응 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박영숙, 1993) 자아 방어기제는 처음에 신경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기 시작하여, 한 개인의 성격 특징, 적응방식,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은 물론 임상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도 중요한 요소임이 지적된 바 있다 (Vaillant, 1971)²⁾

이러한 자기방어가 「스윗마이홈」에서는 결벽 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작품 내에서 복구의 의미를 가진 ‘청소’를 통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무용수 A와 B의 바램은, 타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신의 코드를 타고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된다. 결벽증세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에서부터 비롯된 과도한 자기방어적 습관으로서 어렵게 복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감정선을 담고 있다.

한번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이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위협을 다시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갈등을 해소하더라도 눈앞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순간 이전에 받았던 상처로부터 지독한 염증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한 번 생긴 불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갈등이 해결되거나 원인을 찾아 없앨지라도, 불신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으로 신체에 남게 된다는 것을 「스윗마이홈」을 통해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지나친 자기방어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스윗마이홈」에서의 무용수 A는 과도한 자기방어로 인해 본인 이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지막에는 본인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받은 마음,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중, 무용수 A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가고자 한다.

2) 최혜정.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심리학과, 2009.

Ⅱ. 이론적 배경

2.1 불신감과 자기방어기제

「불신감 不信感 [불썬감] 믿지 못하는 느낌이나 마음。」³⁾

불신감이란 이처럼 어떠한 것을 믿지 못하는 느낌이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뜻한다. 불신감의 대상은 타인이나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물체 또는 현상, 그 어떠한 것이라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위와 같은 감정적 요소가 발생하는 이유를 유추하고자 하면, 주변의 자의적 혹은 타의적인 환경에서 원인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적인 곳까지 올라가다 보면 그 원인은 자기방어기제의 실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방어기제 ego defense mechanism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 1894년 지크문트 프로이트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⁴⁾

자기방어기제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 의식이나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화와는 맥락을 약간 달리하여 그를 포괄하는 더 큰 범위의 개념이다. 남을 탓하고 합리화가 강한 사람 또한 방어기제의 일종이며, 그 외에 경계심이 강한 사람 또는 극심한 예민성을 지닌 사람 또한 자기방어기제가 발달한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방어기제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성숙한 방어기제로 나뉘게 된다. 미성숙한 방어기제에는 부정(denial), 투사(projection), 행동화(acting out), 건강 염

3) 네이버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967ea4ae86f42149bb6605ebd20adb9>

4)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016&cid=40942&categoryId=31531>

려증(hypochondriasis), 퇴행(regression) 수동 공격적 행동(passive-aggressive behavior), 신체화(somatization) 가 있다. 성숙한 방어기제에는 이타주의(altruism), 금욕주의(asceticism), 유머(humor), 승화(sublimation), 억제(suppression) 가 있다.⁵⁾ 본 연구에 적용되는 방어기제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에 속한다.

[표1-1] 미성숙한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부정 (denial)	현실에서 고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듯이 여기고 부정하려는 노력이다. 부정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과는 다르다. 거짓말은 진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두렵거나 싫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아닌 척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부정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투사 (projection)	불쾌하고 받아들이거나 감당할 수 없는 충동을 내부에 담아 두지 않고, 그것이 외부에 있는 양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가장 흔하게는 어떤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여기는 식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아닌 타인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거나, 주변 환경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동화 (acting out)	무의식적 충동이나 소망을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은 마음의 충동이나 소망을 억제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억제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화가 나면 참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상대방을 때린다. 그렇지만 왜 화가 났고 때리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상이나 충동에 얽힌 감정을 의식에서 인식하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5) 나를 방어하는 무의식적 방법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7336&categoryId=47336&docId=1718491>

건강 염려증 (hypochondriasis)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얻거나 퇴행하기 위해서, 사소한 신체적 불편함을 심한 병의 증상이라고 여기며 신체 질환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누군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거나, 타인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공격하려는 충동이 강하게 솟아오를 때, 이러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견디기 어려운데도 직접 표현할 수 없기때문에 발생한다. 이 경우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병이 있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고 걱정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표현되며, 기분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
퇴행 (regression)	현재 맞닥뜨린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발달 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라면서 서서히 기능이 발달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은 힘들고, 숙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반해 충분히 숙달된 기능은 쉽게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긴장을 풀고 싶으면 과거의 발달 단계로 일시적으로 퇴행하는데, 숨통을 트고 숨을 고르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순기능도 있다.
수동 공격적 행동 (passive-aggressive behavior)	내면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복종하거나 피학적인 태도를 취하여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강요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 같아도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고 일을 드러나지 않게 미루거나 지연시킨다. 복종적인 듯 보여도, 사실은 공격성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신체화 (somatization)	⑥무의식의 갈등이나 욕망이 정신적인 내용을 담고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대개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곤 한다. 심리적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신체화로 정서적 불편함을 표현한다.

6) 나를 방어하는 무의식적 방법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7336&categoryId=47336&docId=1718491>

[표1-2] 성숙한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이타주의 (altruism)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타인을 돕는 일로 대신하는 행동으로 이타적 포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직접 욕구를 충족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모두 희생하는 어머니라든가, 월급의 일부를 쪼개서 구호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이타주의의 예다.
금욕주의 (asceticism)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욕망의 충족과 쾌락을 없애고, 금욕을 통해 만족을 얻는 태도다. 도덕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놀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모두 포기하고 공부만 하는 것도 금욕주의적 행동이다.
유머 (humor)	불쾌하고 기분 나쁘거나 공격적인 충동이 생겨도 농담으로 방어하는 것이다. 그 덕분에 불쾌한 감정을 견딜 수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넘어간다.
승화 (sublimation)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목적을 추구하여 무의식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행동으로, 본능적인 에너지가 가로막히거나 분산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출된다. 공격적인 충동이 강한 사람이 의대에 들어가서 외과 의사가 되는 것도 승화의 일종으로 본다.
억제 (suppression)	7)의식 차원에서 느껴지는 충동과 갈등을 의식 혹은 전의식 차원에서 축소하거나 조절하는 것이다. 불편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압도당하지 않고 최소한을 경험하는 선에서 제어한다.

이러한 행동 중에서도 부정, 투사, 행동화, 건강염려증 등의 미성숙한 방어기제 들은 현실의 고통을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품 내에 표현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7) 나를 방어하는 무의식적 방법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7336&categoryId=47336&docId=1718491>

Ⅲ. 연구작품의 개요

3.1 작품의 형식 및 구조

본 연구자는 「스윗마이홈」이라는 작품에서 ‘방=삶’, ‘청소=복구’, ‘결벽=자기방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대입하여 움직임 방법 및 작품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intro를 포함한 총 4개의 장으로 장면을 구성하였다.

두 명의 무용수는 ‘방’과 ‘청소’라는 소재 안에서 ‘결벽’이라는 습관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하게 된다. 불특정 다수가 다시 방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인물 사이에 불신감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불신이 깊어지면서 심화 되는 ‘결벽’의 단계에 따라서 장의 전환을 구성하였다.

[표2-1] 장면의 특성 /Intro- 사건의 발생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Intro	삶이 파괴되고, 실의에 빠진 모습	타인이 난입해 방을 더럽히고, 쓰레기를 던지고, 엉망으로 만든다
	Keyword_ 난장판, 좌절	방= 나의 삶의 터전 방을 파괴= 나의 삶을 파괴

intro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방’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의 연출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좌절당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2-2] 장면의 특성 /1장- 결벽의 발단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1장	망가진 삶을 복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Keyword_ 청소, 정리, 복구, 긍정,	두 명의 무용수 A와 B가 난장판이 된 공간을 정리, 소독, 청소한다.

1장에서는 타의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잃게 된 사람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파괴된 삶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파괴된 ‘방’을 다시 ‘청소’하는 행위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2-3] 장면의 특성 /2장- 결벽의 전개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2장	위험요소의 등장, 불신감의 시작 Keyword_불신, 경계, 결벽의 발단	쓰레기 더미에서 타인을 등장시킴. A와 B가 타인을 경계하며 타인과 접촉한 모든 것을 닦는다.

2장은 이전의 장에서 ‘청소’를 통해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긍정적 바람이 타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신의 코드를 타고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결벽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의 자기방어적 행동을 표현하였다.

[표2-4] 장면의 특성 /3장-결벽의 절정

장면	이미지	표현방법
3장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사람. -결벽의 절정 Keyword_불신, 경계, 고립	타인이 사라지자 A는 B를 경계하고, 피하고, 뿌리치고, 닦는다. B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속해서 본인을 닦는다.

3장에서는 심화 된 ‘결벽’으로 인해 무용수 A와 B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 무용수 A가 결국 자신을 스스로 고립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서 상처 받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신뢰감을 잃고, 더이상 아무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2.1 움직임 표현방법

「스윗마이홈」을 이루고 있는 작품 내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목적성을 가진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닦다, 털다, 줍다, 뿌리다 등 동사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로부터 움직임의 질감, 감정, 에너지 등을 추출 해내어 다양한 방식의 행위를 만들고 무용적 움직임으로 발전시켰다. 발전된 움직임은 두 무용수의 상호작용과 대무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스윗마이홈」에서의 움직임 표현방법을 [표3] 로 정리하였다.

[표3] 움직임표현방법

동기	표현방법	기대효과
방향 (Direction)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몸의 방향, 동선 전환	청소를 연상시키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몸의 방향 혹은 동선에 전환을 준 후 정지 상태에서 행위에 들어감으로써, 관객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행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시간 (time)	타이밍을 활용한 동작 연계	두 무용수의 동작이 시작되는 타이밍을 조절하여, 같은 동작을 다른 타이밍에, 다른 동작을 같은 타이밍에 연계시키는 등 시각적으로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공간 (space)	무대 공간의 분리	작품의 마디마다 캐릭터 간의 무대 공간 사용을 분리하였다.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발생한 일들이 여러 장면으로 분리되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장면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3.2.2 의상



〈사진1〉 무용수 A 의상



〈사진2〉 무용수 B 의상

의상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했던 사항이 위협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품의 특성상 가장 평범하고 눈에 강조되지 않는 일상복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무용수 A와 B가 착용할 의상을 녹색계열로 통일하였다. 녹색은 평화와 희망, 초원, 안전등의 의미를 지닌다.

하의는 겹레, 소독제와 같은 소품의 수납을 위해 허리에 밴딩과 포켓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였고, 무용수 A와 B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컬러의 통일성을 주었다. 또한, 상의는 공동체이지만 서로가 다른 객체임을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된 크롭 형태에서 와이드핏과 슬림핏, 라운드 넥라인과, 터틀 넥라인으로 차이를 두어 캐릭터 간의 차별성을 주었다.

3.2.3 조명

「스윗마이홈」을 이루고 있는 무대조명은 작품의 이미지에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각 장의 분위기 전환점에 따라서 조명의 색감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절망적 분위기인 Intro에서는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전구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사이키 조명과 조도를 낮춘 화이트 조명을 사용하였다. 1장에서는 긍정과 희망, 극복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조명을, 2장에서는 1장과의 연계성과 장면의 전환을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1장의 플랜을 유지하고 색감만 주황색으로 교체하였다. 3장에서는 고립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란색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작품의 중간중간 공간의 분리나 강조를 보여주기 위하여 탑 조명을 사용하였다.

[표4] 조명의 구성

장면	조명	분위기
Intro	화이트(어두운 조도), 사이키 조명	불안감, 절망적 분위기
1장	노랑(따뜻한 느낌) -side, back, 탑 조명	긍정, 희망, 극복
2장	주황(따뜻한 느낌) -side, back, 탑 조명	1장과의 연계, 불신, 희극
3장	파랑(차가운 느낌) -side, back, 탑 조명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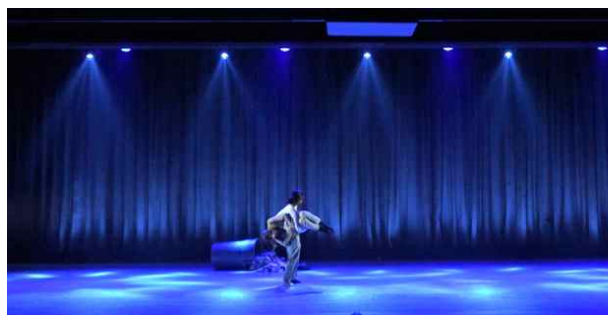
〈사진3-1〉 Intro 조명



〈사진3-2〉 1장 조명



〈사진3-3〉 2장 조명



〈사진3-4〉 3장 조명

**** 왼쪽 위부터 Intro, 1장, 2장, 3장, 4장의 조명의 컬러 변화

3.2.4 음악

① 효과음

음악은 30초 정도 반복되는 효과음이며, crescendo 형식으로 작은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증폭되다가 최고조에 이른 후 out 된다. 반복되는 효과음은 작품 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건의 발생을 암시한다.

②Non, je ne regrette rien-Edith Piaf

Non, je ne regrette rien은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뜻의 불어로 Edith Piaf의 불운한 삶과 상반되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그녀가 살아온 배경을 알게 되고 나서 나는 ‘기구한 삶 속에서 살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던 그녀는 정말로 괜찮았을까?’ ‘정말로 아무것도 상관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떠올랐다. 작품 안에서 이 긍정적인 내용의 가사가 1장에서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대변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삶이 파괴되고 좌절당한 사람이 나는 아무렇지 않다며 상처를 감추고 애써 괜찮은 척 극복하려는 모습을 ‘Edith Piaf’의 ‘Non, je ne regrette rien’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③Amapola- the soundtrack kings

반복되는 리듬의 잔잔한 기타 소리가 특징인 음악이다. 2장에서는 타인의 등장으로 인해 무용수 A와 B에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전쟁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다. 따라서 음악을 BGM처럼 깔아 놓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Amapola- the soundtrack kings를 선택하였다.

④ Ylang Ylang- FKJ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특징인 음악이다. 마지막 장면의 이미지는 고립이다. 3장의 고립된 이미지 표현을 위해 아련하고 잔잔한 음악을 선택했다.

IV. 작품분석

4.1 작품의도

나는 오래전부터 타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수궁해버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수많은 과거의 불행에서 언제나 나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갔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엉망이 된 마음의 상처들을 끊임없이 회복해야만 하는 삶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삶에 타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순간에도 당연하듯이 나는 나를 탓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이 힘들어지면서 그 불행이 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점점 화가 났다. 나의 불신감은 마음속 작은 불만과 분노, 나 자신에게 묻는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뭘 그렇게 잘못된 걸까?” 더는 자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점차 인간 관계에 불신감을 싹트게 했다. 그러나 관계에 대한 불신은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 지나친 자기방어로 인해 나 또한 내 주변의 사람을 상처입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지나친 자기방어를 깨달으며 생각했다. 이 불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은가?

4.2 작품내용

누군가 나의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두 명의 무용수는 청소를 통해 엉망이 된 자신의 방을 복구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파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 바람은 작품 안에서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된다. 누군가 다시 방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인물 사이에서 불신감을 만들어내고, 불신이 깊어질수록 결벽은 심화된다.

4.3 Intro : 사건의 발생

4.3.1 내용 및 안무 의도

특정한 사건의 발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용적 움직임이 없는 Intro 장면을 1장 이전에 추가하였다.

또한, 작품의 도입부부터 ‘방’이라는 세계관을 설정해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작품 안에서의 ‘방’은 등장인물의 삶 그 자체를 뜻하며, 본인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 삶의 질, 패턴, 혹은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과 의지 등 본인이 구축한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운더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타인들이 방에 침범하여 나의 개인적 공간인 ‘방’을 파괴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경계선을 침범하여 나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Intro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가진 ‘방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장면의 연출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삶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좌절당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Intro에서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용적 움직임을 배제하고, 무대 위 오브제의 연출과 출연자들의 행위 위주로 표현의 방법이 구성되어있다.



〈사진4〉 Intro: 사건의 이전의 모습 〈사진5〉 Intro: 사건의 이전의 모습

모든 인간은 인생이라는 굴레 안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간다 〈사진4〉, 〈사진5〉에서 무대의 센터 쪽에 눕혀져 있는 쓰레기통은 사건의 이전에도 이미 한 번의 풍파가 지나갔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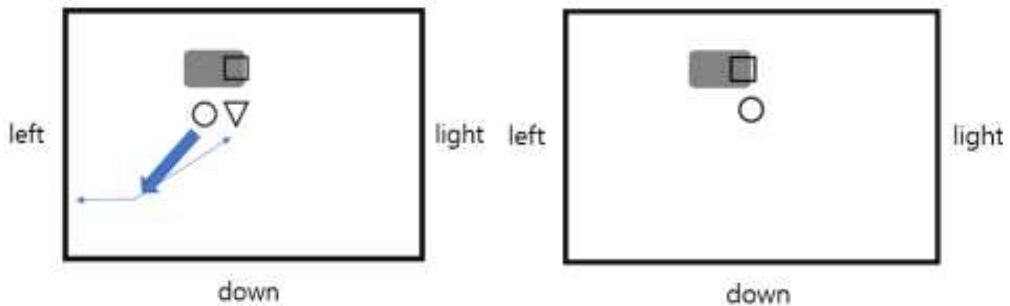
〈사진6〉 Intro: 사건의 발생

〈사진7〉 Intro: 사건 후, 파괴된 방
남겨진 무용수

불행은 불시에 연속적으로 찾아온다. 〈사진6〉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타인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는 행위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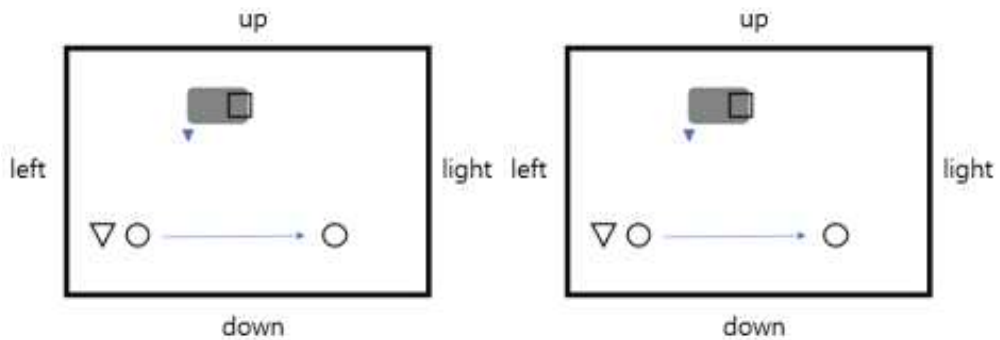
사건,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사건 후, 파괴된 방에는 〈사진7〉과 같이 무용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다. 플로어 패턴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무용수 A, △=무용수 B, □=타인, ■=쓰레기통, ◆=의자



〈그림 1-1〉 Intro: 플로어 패턴

〈그림 1-2〉 Intro: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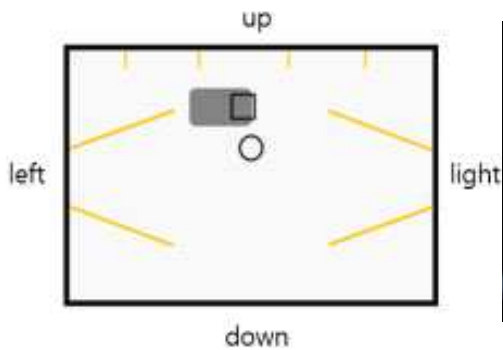
〈그림 1-3〉 Intro: 플로어 패턴

〈그림 1-4〉 Intro: 플로어 패턴

4.3.3 음악

음악은 30초 정도 반복되는 효과음이며, crescendo 형식으로 작은 소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증폭되다가 최고조에 이른 후 out 된다. 첫 장면은 무음 상태에서 움직임이 이루어지다가, 조명이 깜빡이는 효과와 함께 음악이 시작되면 불특정 다수가 방으로 난입하여 공간을 더럽힌다. 반복되는 효과음은 작품 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건의 발생을 암시한다. 음악이 out 되는 순간 무용수는 더럽혀진 방안에 혼자 남게 된다.

4.3.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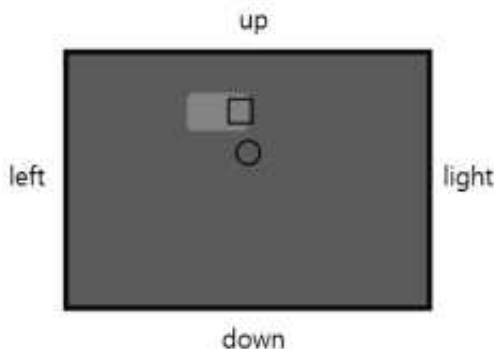


〈그림1-5〉 Intro: 조명 플랜



〈사진8〉 Intro: 조명 플랜

Intro의 첫 장면부터 낮은 조도의 조명에서 후광 (back light) 조명과 측광 (side light) 조명을 사용하여 비어있는 바닥을 강조하였다.



〈그림1-6〉 intro: 조명 플랜



〈사진9〉 Intro: 조명 플랜

전구가 깜빡이듯 조명이 천천히 깜빡이는 효과를 사용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 하였으며, 음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음악의 crescendo에 따라 빠른 속도로 깜빡이다가 음악이 멈춤과 동시에 같이 정지한다.

4.4 1장: 공간(방)- 결벽의 발단

4.4.1 내용 및 안무의도

대다수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어진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임을 오랜 시간 동안 학습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Intro에서 파괴된 ‘방’을 다시 ‘청소’를 통해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소라는 행위는 과거에 생활과 생명, 또는 조직과 체계가 존재했으며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을 전제한다. 한참 실의에 빠졌던 사람이 극복의 신호를 보이는 순간은, 방치해두었던 자신의 공간을 청소하는 때다. 그가 청소를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다. 삶은 시작과 반복이며, 인간은 변화와 유지를 동시에 원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청소다. 청소는 ‘새롭게 이전처럼 만든다’라는 이율배반적인 말을 가능하게 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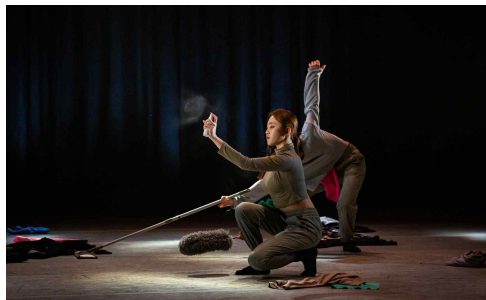
작품 내에서 청소라는 행위는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1장에서 등장하는 청소라는 행위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 즉 나의 생태계를 돌보고, 그것을 파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라는 행위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내는 것, 이전의 사건으로 인해 파괴된 자신의 삶을 복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 따라서 1장에서는 타의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잃게 된 사람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파괴된 삶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파괴된 ‘방’을 다시 ‘청소’하는 행위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8)임성민, *청소 끝에 철학* (네이버, 2018)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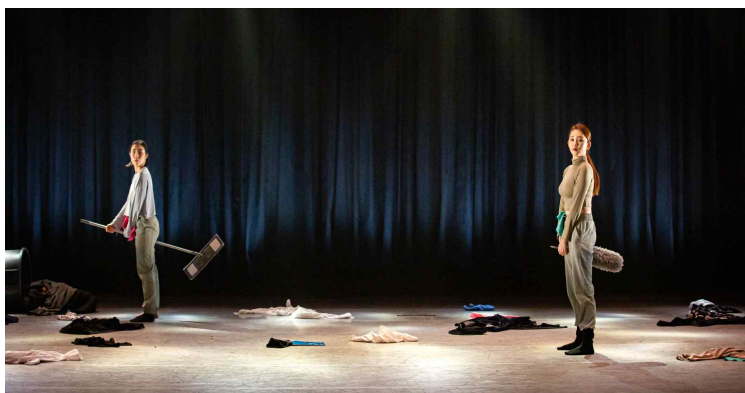


〈사진10〉 1장: 결벽의 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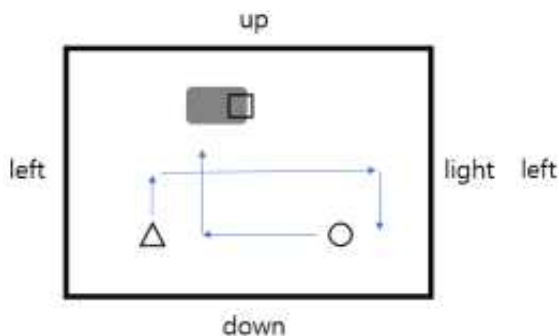
〈사진11〉 1장: 청소를 통한 삶의 복구

〈사진10〉과 〈사진11〉은 Intro에서 파괴된 ‘방’을 다시 ‘청소’를 통해 복구하는 장면이다. 1장의 움직임은 닦다, 털다, 쓸다, 줍다, 뿌리다 등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움직임으로서, 행위에서부터 무용적 움직임과 대무로 발전시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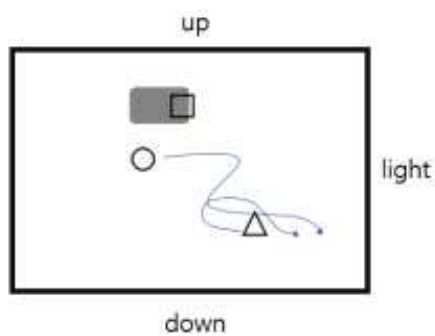


〈사진12〉 1장: 빗자루를 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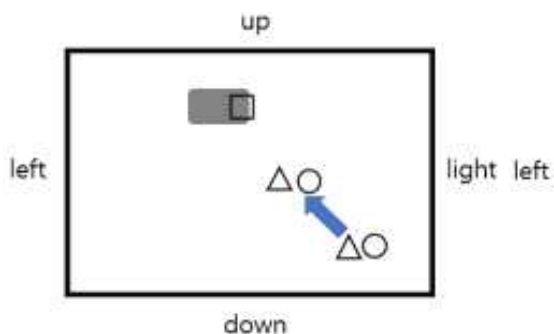
〈사진12〉와 같이 빗자루를 탄 모습은 마녀의 모습을 희화화한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뜻하는 상징적 움직임이다. 판타지 동화책 등에서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는 짓궂은 짓을 저지르는 인물 가볍게 묘사되지만, 그 기원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 가장 힘없는 계층에게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을 덮어씌운 비극이었다. 낮은 여성들에게 청소는 임무였으므로 그들은 빗자루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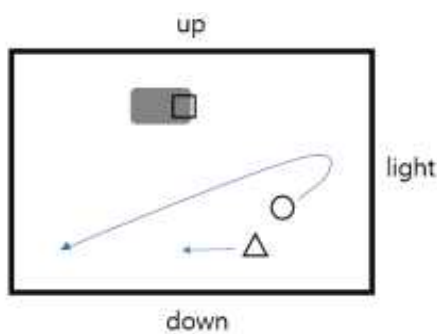
〈그림 2-1〉 1장: 플로어 패턴



〈그림 2-2〉 1장: 플로어 패턴



〈그림 2-3〉 1장: 플로어 패턴



〈그림 2-4〉 1장: 플로어 패턴

4.4.3 음악

1장에 사용되는 음악은 Non, je ne regrette rien으로 불운의 삶을 살아온 프랑스 최고의 가수 Edith Piaf 의 노래이다. Non, je ne regrette rien은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뜻의 불어로 Edith Piaf의 불운한 삶과 상반되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몰랐을 때는 그녀가 죽어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를 들으며, 단순히 흥겹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노래라고 느꼈었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온 배경을 알게 된 후에 나는 다시 한번 이 노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9)임성민, *청소 끝에 철학* (네이버, 2018)

Edith Piaf가 Non, je ne regrette rien를 불렀을 때 그녀는 정말로 괜찮았을까? 정말로 상관없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떠올랐다. 가끔은 유쾌함 속에서 나오는 슬픔이 오로지 슬픈 것보다 더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작품 안에서 이 긍정적인 내용의 가사가 역설적으로 1장에서의 상황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문에, 삶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좌절당한 사람이 나는 아무렇지 않다며 상처를 감추고 애써 괜찮은 척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Edith Piaf’의 ‘Non, je ne regrette rien’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Ca M'est Bien Egal

-사람들이 내게 줬던 행복이건 불행이건 간에. 그건 모두 나완 상관없어요!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예요! 그 무엇도 아무 것도. 아니예요! 난 아무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C'est Paye, Balaye, Oublie, Je Me Fous Du Passe

-그건 대가를 치렀고, 쓸어 버렸고, 잊혀졌어요. 난 과거에 신경쓰지 않아요!

Avec Mes Souvenirs J'ai Allume Le Feu Mes Shagrins, Mes Plaisirs,

-나의 추억들로 난 불을 밝혔었죠.나의 슬픔들, 나의 기쁨들

Je N'ai Plus Besoin D'eux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Balaye Les Amours Avec Leurs Tremolos

-내가 사랑했던 이들을 지워버리고, 그 사랑들의 모든 전율도 쓸어 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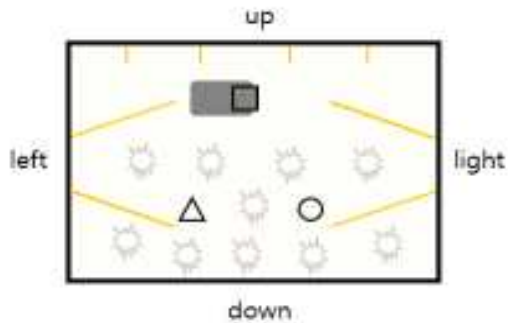
Balaye Pour Toujours Aujourd'hui Ca Commence Avec Toi

-영원히 쓸어 버렸어요.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¹⁰⁾

-Non, je ne regrette rien의 가사 中

10)naver vibe- <https://vibe.naver.com/search?query=Non,%20Je%20Ne%20Regrette%20Rien>

4.4.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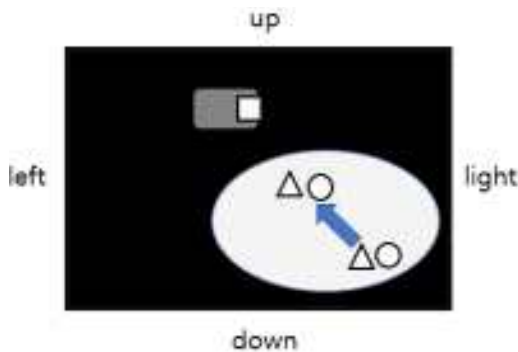


〈그림 2-5〉 1장: 조명 플랜



〈사진13〉 1장: 조명 플랜

앞 씬의 어두운 장면으로부터 분위기 전환을 위해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또한, 후광(back light) 조명을 사용하여 문양으로 바닥을 채워 강조하였다.



〈그림 2-6〉 1장: 조명 플랜



〈사진14〉 1장: 조명 플랜

1장의 후반에 top light를 사용해 허전한 무대를 좁히고 상수 down stage를 강조하여 집중도를 높였다.

4.5 2장: 타인- 결벽의 전개, 불신감의 시작

4.5.1 내용 및 안무의도

낮선 인물인 타인이 한곳에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 안에서 나타난다. 무용수 A와 B는 타인을 만진 손과 타인이 지나간 길, 타인과 접촉한 오브제를 닦는다. 1장에서 ‘청소’를 통해 상태를 복구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바람이 타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신의 코드를 타고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결벽증세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비롯된 자기방어적 습관으로서 어렵게 복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감정선을 담고 있다. 누군가 다시 방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인물 사이에서 불신감을 만들어내고 불신이 깊어질수록 결벽은 심화 된다.

본 연구자는 2장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위협적인 요소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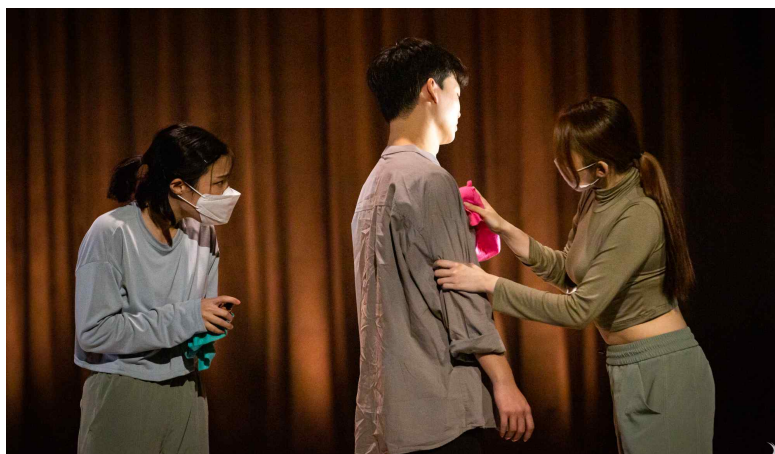
〈사진15〉 2장: 타인의 등장



〈사진16〉 2장: 타인을 경계하는 모습

〈사진15〉,〈사진16〉은 무용수 A와 B가 쓰레기통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타인을 경계하는 장면이다. 2장은 ‘닦다’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베이

스를 구성하였고, 다양한 ‘닿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움직임은 타인을 만진 손을 닦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어 서로를 닦아 주거나 스스로 닦고, 타인을 따라가면서 타인이 지나간 길을 닦는 과정들을 무용적 움직임으로 풀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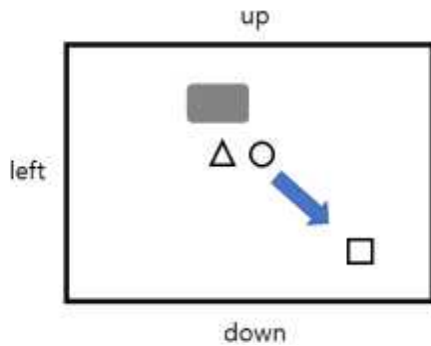


〈사진17〉 2장: 결벽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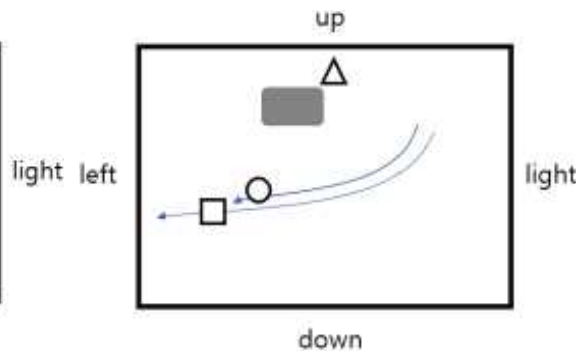
타인을 경계하며 그 주변 정도만 맴돌던 무용수 A와 B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진17〉, 〈사진18〉과 같이 결국 참지 못하고 타인을 잡고 닦으며 직접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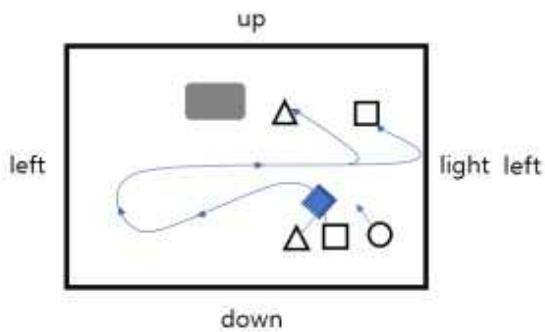
〈사진18〉 2장: 타인을 닦는 무용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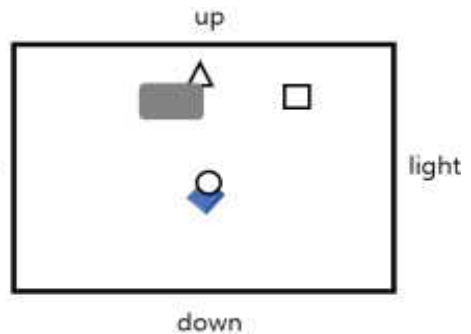
〈그림 3-1〉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3-2〉 2장: 플로어 패턴



〈그림 3-3〉 2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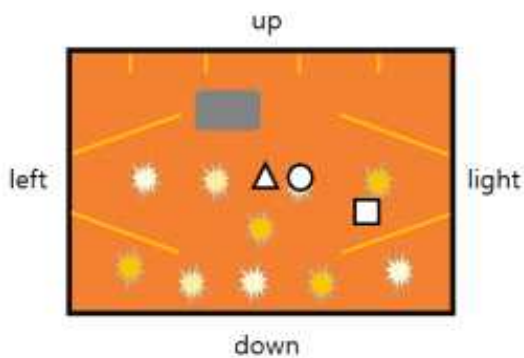


〈그림 3-4〉 2장: 플로어 패턴

4.5.3 음악

음악은 Amapola- the soundtrack kings로 반복되는 리듬의 잔잔한 기타 소리가 특징인 음악이다. 2장에서는 타인의 등장으로 인해 무용수 A와 B에게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전쟁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다. 따라서 음악을 BGM처럼 깔아 놓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귀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Amapola- the soundtrack kings를 선택하였다.

4.5.4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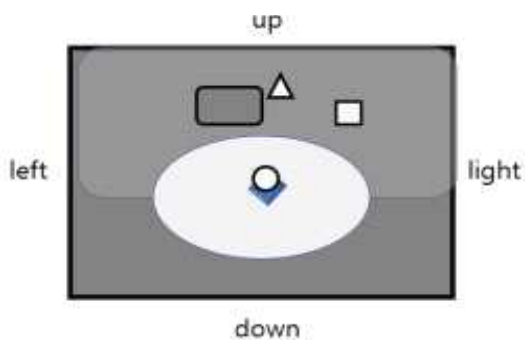


〈그림 3-5〉 2장: 조명 플랜



〈사진19〉 2장: 조명 플랜

2장은 장면을 전환하되 1장과의 연계되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림 3-5〉와 같이 1장의 조명 플랜을 그대로 베이스로 두고, 채도만 높여 주홍빛으로 만들었다.



〈그림 3-6〉 2장: 조명 플랜



〈사진20〉 2장: 조명 플랜

또한, 〈그림 3-6〉 과같이 중앙의 의자에 top light를 사용하여 무용수 A / 무용수 B + 타인의 공간을 분리했다.

4.6 3장: 결벽의 절정- 공동체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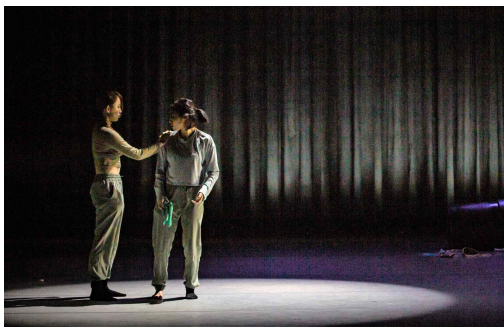
4.6.1 내용 및 안무의도

3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본인 이외에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본인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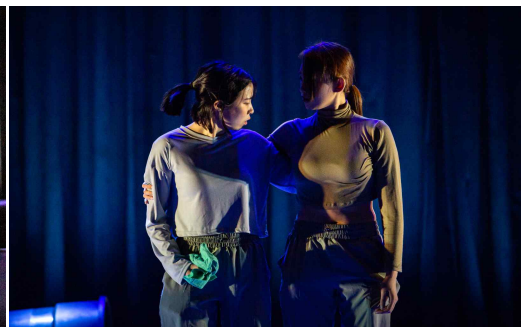
불신이 깊어질수록 ‘결벽’은 심화 된다. 그렇게 심화 된 결벽은 무용수 A와 B의 관계까지도 갈라놓게 된다. 무용수 A는, B를 피하고, 뿌리치고 닦다가 결국 B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 결국, 작품은 A가 혼자 남아 본인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게 되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말로 끝을 맺게 된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무용수 B가 무용수 A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신 옆의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지나친 자기방어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며 작품은 결말을 짓는다.

4.6.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장은 전체적인 움직임은 A는 B를 거부하고, B는 A를 잡으려는 목적성을 바디컨택(body contact)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21〉 3장: 결벽의 절정



〈사진22〉 3장: B와의 접촉에
불신감을 느끼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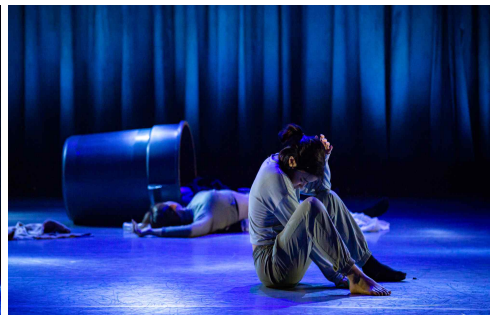


〈사진23〉 3장: A에게 접촉하는 B, B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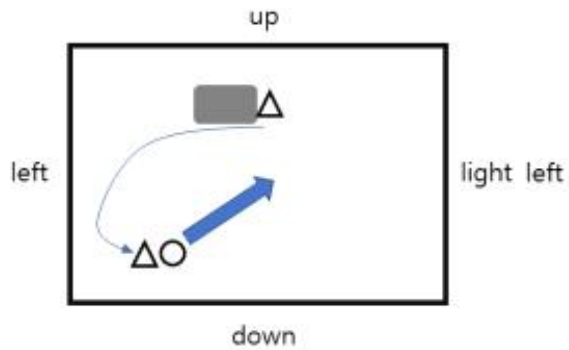
A는 최측근이었던 B에게조차 불신감을 느끼게 되고, B는 〈사진23〉과 같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A에게 매달린다. 그러나 A는 B를 거부하고 벗어나려 하는 모습이 두 무용수의 바디컨택(body contact) 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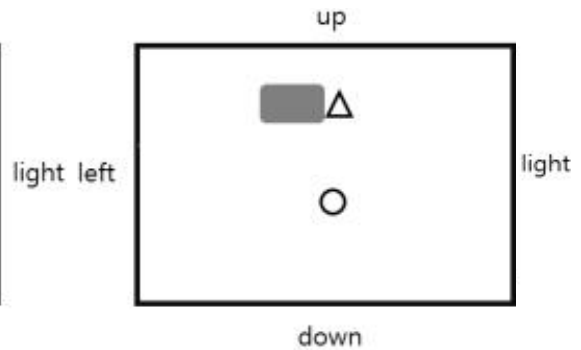
〈사진24〉 3장: B를 버리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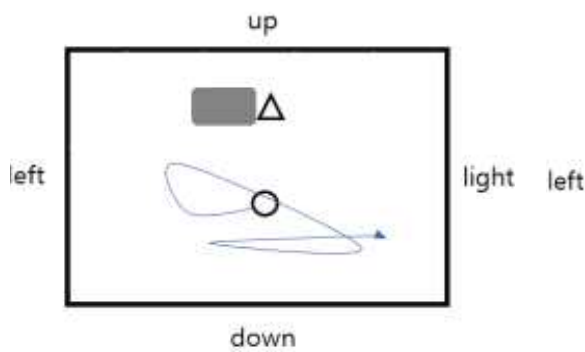
〈사진25〉 3장: 버려진 B 혼자가 된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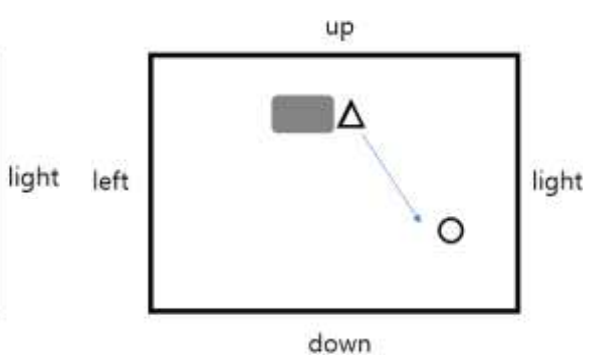
〈그림 4-1〉 3장: 플로어 패턴



〈그림 4-2〉 3장: 플로어 패턴



〈그림 4-3〉 3장: 플로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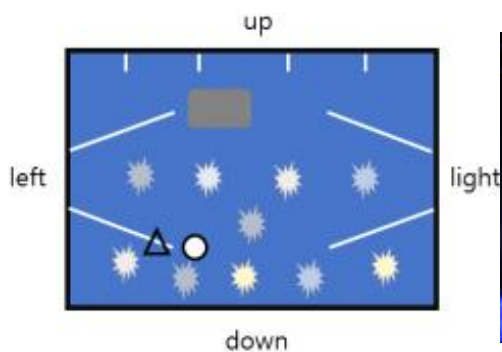


〈그림 4-4〉 3장: 플로어 패턴

4.6.3 음악

음악은 Ylang Ylang- FKJ 으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특징인 음악이다. 마지막 장면의 이미지는 고립이다. 3장에서의 갈등과 고립된 A의 이미지 표현을 위해 아련하고 잔잔한 음악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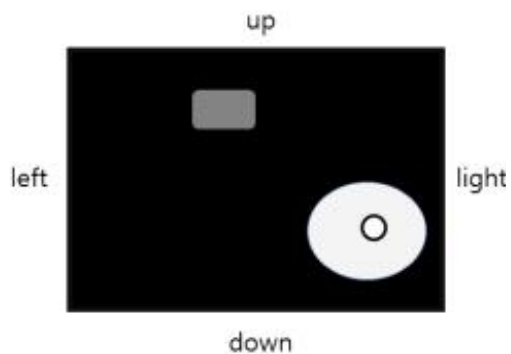
4.6.4 무대장치 및 조명



〈그림 4-5〉 3장: 조명 플랜

〈사진 26〉 3장: 조명 플랜

3장에서는 고립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란색 조명을 사용하였다.



〈그림 4-6〉 3장: 조명 플랜

〈사진27〉 3장: 조명 플랜

작품의 엔딩 장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탑 조명을 사용하였다.

IV. 결론

작품 내에서 ‘청소’를 통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바람은 낯선 타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불신의 코드를 타고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된다. 결벽증세는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자기방어적 습관으로서, 어렵게 복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등장인물들의 내적 감정선을 담고 있다.

두 명의 무용수는 ‘방’과 ‘청소’라는 소재 안에서 ‘결벽’이라는 습관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표현하게 된다. 불특정 다수가 다시 방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인물 사이에서 불신감을 형성하게 되고 불신이 깊어질수록 ‘결벽’은 심화 된다.

그렇게 심화 된 결벽은 무용수 A와 B의 관계까지도 갈라놓게 되고, 무용수 A는 결국 자신을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 마지막 장면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무용수 B가 무용수 A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자신 옆의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지나친 자기방어로 인하여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며 작품은 결말을 짓는다.

강박 장애 환자들은 충동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자신을 괴롭히는 데 사용된다. 결벽증 환자가 쉬지 않고 청소하고 끊임없이 손을 씻는 이유는 현재가 아닌 앞으로의 걱정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다. 청소는 현재에 과거를 치우는 일이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흔적이 쌓여 치워야 한다고 느껴질 때가 그 흔적이 치워지는 시점이다 다시 지워버리면 그때 또 치우면 된다. 삶도 그렇다.¹¹⁾

본 연구자는 연구를 통하여 원활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의 입장을 방 청소라는 소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로하고 싶었다. 또한, 무용수 A가 트라우마

11)임성민, *청소 끝에 철학* (네이버, 2018)

로 인하여 인간관계에서 서서히 고립되어가는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무심코 쉽게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무용수 A의 모습을 통하여 지나친 방어는 자신 옆의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예술관념 관념을 구체적으로 재적립하게 되었으며, 예술적 표현에는 한계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활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강연우.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Narcissism, defense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석사학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 고려원, 1995.)

임성민, *청소 끝에 철학* (네이버, 2018).

최혜정.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석사학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 심리학과, 2009.

피에르 볼츠. 김찬자, 이선형, 임혜경, 전의진(역). *프랑스 희극의 역사*. (연극과 인간, 2018)

하지현, 신동민. *청소년을 위한 정신의학 에세이*. (서울:해냄, 2012.)

naver vibe

<https://vibe.naver.com/search?query=Non,%20Je%20Ne%20Regrette%20Rien>

나를 방어하는 무의식적 방법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7336&categoryId=47336&docId=1718491>

부 록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스윗마이홈
일시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PM7시
장소	한성대학교
안무자	박지예
출연진	박지예, 신상희
의상디자인	박지예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감독	Hanfilm

팜플렛

HANSUNG UV

조명감독
주영석

사진/영상
Hanlim

주최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삼선동2가) 한성대학교

MOVEMENT MOVEMENT

**2020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학위
청구 작품 발표회**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PM 7

관객 김송연 박민지 박지예 이수빈

Park- jiyea

작품 제목 스윗마이홈

작품 내용

'누군가 내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두 명의 무용수는 청소를 통해 엉망이 된 자신의 방을 복구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파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 바람은 작품 안에서 점차 결벽이라는 습관으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된다.
누군가 다시 방을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인물 사이에서 불신감을 만들어내고,
불신이 깊어질수록 결벽은 심화 된다.



작품 의도

불신감이란 믿지 못하는 마음을 뜻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회에서 타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더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안에서의 '방'은 내 삶의 타전을 의미하며,
'방'이 엉망이 된 것은 누군가 나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트렸다는 것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한,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는 것은 나의 공간(삶)을 돌보는 행위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내는 것, 즉 망가진 삶을 복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뜻한다.
결벽 증세는 어렵게 복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자기방어적 습관이며,
인물 간의 불신을 통해서 점차 심화된다.
때문에 작품 안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은 방만의 더러운 물건들을 치우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부터
아직 더럽히지도, 더러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결단 지어 행동한다.

인물 및 출연



박지예

출연



김지호



신상희

지도교수 : 김남용 교수님

ABSTRACT

A Study on a Dance Creative Work 「Sweet My Home」

Park, Ji-Yea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is a thesis recording the analysis of expression methods and research process of a dance creative work 「Sweet My Home」 produced under the theme of an emotion ‘distrust’. The researcher aimed to describe the psychological situation in which a person who got hurt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eventually could not trust anybody including oneself within the work, and the researcher selected ‘distrust’ from many emotions felt by humans as the theme of this research.

‘Distrust’ means a feeling or mind that cannot trust somet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motion ‘distrust’ formed with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lso to express humans’ internal conflicts originated from the emotion in the work.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ance work 「Sweet My Home」 was produced by applying three keywords such as ‘room=life’,

‘cleaning=restoration’, and ‘finickiness=self-defense’. The researcher brought materials like the world view as ‘room’ and cleaning act from the work.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a scene of artificially destroying the ‘room’ with symbolic meanings into a mess, the work aimed to metaphorically express the look of a person whose life was destroyed and frustrated. Also, through the act of ‘cleaning’ the destroyed ‘room’ again, this work aimed to metaphorically express the look of a person who lost one’s life by others accepte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n put efforts to restore the destroyed life once again.

Lastly, the wish to restore and maintain the previous condition through ‘cleaning’ is gradually changed to a habit of ‘finickiness’ with the code of distrust by the appearance of strange others. As an excessive self-defensive habit originated from distrust in others, the symptom of finickiness aimed to express the internal emotions of characters who hoped to continuously maintain their lives that were restored with difficulty.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 wan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also to indirectly comfort modern people of the 21st century getting hurt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material of cleaning room. Also, by expressing the process in which Dancer A was gradually isolated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cause of trauma, the researcher aimed to arouse attention to acts that could hurt others easily and carelessly.

【Keyword】 Room, cleaning, self-defense, Distrust, Interpersonal relationship